

이재영 선교사님 선교 소식

선교 보고 및 인사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불가리아에 온 지도 3년 8개월이란 세월이 지나고, 그 중 2년여의 적지않은 시간을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제약된 상황속에서 살아 올 수 밖에 없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새해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의 방향들을 잡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제목

1. 기독교 교육, 문화 센터 설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19년 11월 소피아 교회 소예배실에서 처음 시작했던 축복학교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6주간의 시즌 2를 마지막으로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탁터롱 교회 사용이 어려워 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축복학교가 다시 시작될것을 여러번 요청했었고 심지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가용한 장소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재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곳에 있는 교회에 든든한 힘이 되어 줄수 있을까? 이 땅의 교회들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수 없이 되 뇌이며 고민하던 중 현지교회 안에서 직접 협력하는 사역과 교회 밖에서 교회로 유입될 수 있는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사역,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문화 형성을 위한 센터 사역이 병행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불가리아 부르가스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는 영국과 독일에 있는 몇몇 교회들과 UMC 본부의 도움으로 건축 자금을 마련해 건축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자재비가 많이 오르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더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 교회를 방문하여 담임 목사를 만났었는데 저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교회 건축에 관한것은 자제하더라도 자신들의 교회에 약 50여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매주 그들을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후원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인력은 있지만 교회 공사가 지연되고 많은 비용이 지출되면서 정작 교회에 실무적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의 미자립 교회들처럼 불가리아 교회들은 출석 성도수가 많지 않고 교회 헌금 상황이 풍족하지 않아 교회를 관리하고 기타 교회 사역들을 진행하고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부분 성도가 집시인 교회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가리아 부르가스 감리교회의 상황을 전하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예아, 노아 - 아이들을 위한 기도

특히나 아이들이 지난 2 년동안 학교나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제한되어서 여전히 학교 수업에 적응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현지 아이들보다 학습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데 학교 시험은 계속 치러야만 하고, 성적으로 진급하고, 성적순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다보니 부담감만 쌓이고, 그러다보니 아이들 조차 학교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노아는 올해 5 월 이곳 중등과정으로 입학하는 시험을 치뤄야 하고, 예아는 내년 5 월에 고등과정으로 입학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을 치르기에는 여전히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아이들은 물론 저희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 아이들은 적응하려는 의지 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점점 심해져서 쉽지않은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이제 심대로 접어들다 보니 사춘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아내 김정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내 김정은 선교사는 작년 3 월 갑작스런 복막염 수술이후 건강검진과 건강 관리를 위해 여름에 한국 방문을 했었지만, 불가리아로 돌아오자마자 자궁내 폴립을 제거 하는 수술을 하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상 생활 가운데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평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육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족 모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주변 상황과 건강 그리고 일상이 불안정해지다 보니 영적인 싸움 또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 주일 현지인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 영적인 가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갈급함을 채우려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느끼는 영적인 고갈의 늪은 종종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그리스도의 평강을 서로 누리고, 행복함으로 매일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 기도를 부탁드립니다.